

동네 산책

N서울타워

‘N서울타워’는 효율적인 방송전파 송수신과 관광 전망시설의 기능을 겸비한 국내 최초의 종합전파 탑으로 방송문화와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건립되었다. 세계 유명한 종합 탑들이 그 나라 또는 그 도시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N서울타워 역시 서울의 상징물 역할을 해왔다.



N서울타워로 가는 방법은 도보, 케이블카 그리고 대중교통이 있다. 자가용은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까운 주차장에 맡겨야 한다.

주차장

- [남산동 공영주차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24
- [남산케이블카 주차장]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19
- [남산공원 주차장] 서울시 중구 소파로 46
- [국립극장 주차장]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소요시간 : 약 40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유명한 계단길(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옆)을 이용하여 팔각정까지 걸어간다.



소요시간 : 약 30분

남산도서관 앞 남측 순환로 입구부터 걸어간다.



소요시간 : 약 40분

국립극장 옆 매표소를 따라 남측 순환로를 이용하여 걸어간다.

국립극장 옆 매표소에서 남측 순환로를 따라 이동, 우측 계단로를 이용하여 걸어가면 10분 단축된다.

* 상기 내용은 도보를 이용해 N서울타워로 가는 다양한 방법이다.

나도 역사해설가



높이는 해발 262m. 남산의 한자표기는 南山. 그 뜻의 유래는 조선시대의 궁궐인 경복궁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있는 산이 이 남산(남쪽의 산)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 태조 때에는 왕의 등 뒤에 있는 북악산은 백작으로 대우한 반면 왕이 남면(南面)하는 남산은 왕과 동격으로 대우하여 일반인이 제사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 남산에 올라가면 N서울타워가 있으며 팔각정, 남산 봉

화대 등 몇몇 볼거리가 있다. 물론 서울의 야경은 아주 대단하다.

원래 남산 일대는 조선시대 때 도성을 수비하는 군대가 무예를 닦던 '무예장'이 있던 곳이었으나,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이 예장 터에 성을 지어 '왜성대(倭城臺)' 또는 '왜장대(倭將臺)'라고 불린 아픈 역사가 있다. 구한말 시기부터 경복궁에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남산에는 통감부 건물과 통감 관저가 있었다. 그 주변에는 경성에서 사는 일본인들의 집단 거류지가 있어 왜성대라 불렸다.

일제는 남산도서관, 안중근의사 기념관, 백범광장, 분수대 위치에 조선신궁을 세웠고 역사책에서 등장하는 '조선인에게 일년에 두 차례씩 신사참배를 강요' 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남산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을 세우려고 했으나 이는 4.19혁명으로 백지화 되었다.

1961년에는 중앙정보부가 들어서고, 이후 남산 외인아파트, 송의(초/여중/여고/여대), 남산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경관 파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1991년부터 '남산 제모습 갖추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1995년 안기부 이전과 1996년 안기부 별관건물 철거, 그리고 필동에 있었던 수도방위사령부를 이전해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남산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남산돈까스, 남산에는 돈까스 음식점이 왜 많을까?

남산돈까스는 남산 소파로 일대의 돈가스집과 그곳에서 파는 돈가스를 이르는 말이다. 1992년에 원조 남산돈까스가 개점했다.(1977년부터 운영해왔다는 '원조남산왕돈까스'라는 집도 있는데, 1977년부터 식당으로 운영하다가 돈가스집으로 전향했다). 당시 소파로 일대에는 남산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온 가족 손님들과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사식당이 많았는데, 남산돈까스 역시 기사식당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남산을 왕래하던 택시기사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지면서 남산의 맛 코스가 되었다고 한다.

